열린마당

새 집행부에 거는 기대

이제 새롭게 출발할 때다

사 설

조계종 새 집행부에 바란다. 지난 3월 한국불교의 대표격인 조계종단에 개혁의 물결이 힘차게 일어났다. 그동안 타성에 젖은 구시대적 묵은 먼지를 씻어내고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여 종헌과 종법을 새롭게 개정 정비하였다. 종정도 새로 모시고, 원로회의도 덕망있는 노덕스님들로 추대하였다. 개혁된 종헌에 의한 종회가 구성되었고, 새로운 선거법에 의한 총무원장도 선출되었다. 개혁회의는 8개월여의 산고를 치루며 대한불교 조계종의 새 모습을 탄생시켰으니, 한국불교 근대사에 의미있는 한 페이지를 남기게 되었다.

이제 새로 태어난 한국불교의 얼굴, 한국불교의 주역인 조계종 총무원장과 종회는 국민의 시선과 종도들의 염원에 어긋나지 않게 귀를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여 개혁회의에서 넘겨 받은 종단의 종책을 차질없이 실천해야 한다.

지금 조계종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와 불자들의 여망이 지난날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과거의 종단에서 자행되었던 오류와 개혁기간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잘못된 일들을 착실히 점검하고 판단하여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아감과 동시에 사회가 필요로 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앞서 가는 종책을 마련하여 실천해 주기 바란다.

특히 이번 선거로 당선된 총무원장과 종회의원들은 종도들의 염원을 겸허하게 받들고, 자신들이 제시한 종책뿐만 아니라, 상대방에서 제시한 의견도 폭넓게 수용하기 바라며, 치열했던 선거전에서 생긴 갈등을 하루 속히 해소하여 화합적 승가 정신에 입각한 종단 발전 방안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종단 운영을 둘러싼 불화와 불미스러운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하며 아울러 국제화·지방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종단 발전책을 수립 실천해 주기 바란다. 모든 것은 대승보살도의 정신에 입각한 수행과 봉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먼저 수행적 측면에서, 수행종단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율장정신에 의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승가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각종 승가교육기관의 행정관리와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종단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 봉사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교세확장을 위해서는 포교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여경·복지·환경·사회·통일 등의 문제도 종단적 차원에서 현실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실현해야 할 절실한 과제이다. 한가지 더 바란다면 불교의 자주권 확립이다. 과거처럼 외부에 끌려가는 힘없는 종단이 되지 말고, 할 말은 하고 찾을 것은 찾는다는 소신을 갖고 한국 제일의 종교단체로서의 위상을 세워주기 바란다.

부처님께서는 출신·모양·사는 곳·생각이 다른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진리를 말씀하셨다. 한 중생도 버릴 수 없거늘, 어찌 한 종도로서 화합할 수 없으며, 이웃의 불안한 마음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겠는가.

새로 태어나는 조계종 집행부는 종단을 안정시키고, 사회에 등불이 되어 통일된 한반도에 불국토를 건설하는 초석이 되어 줄 것을 기원하는 바이다.

현대만평

박 구 원

부처님 귀로 종도들의 소리를···

사부대중의 목소리

종단제도·잘못된 의식 제자리로

보 광 〈동국대 정각원장〉

제28대 총무원장이 선출된 것은 어느 때의 원장 선출보다 의미가 크다.

지난 봄의 그 뜨겁던 개혁의지를 계승하고 다시 불교 전반에 적절히 적용시켜야 할 책무가 새로 구성되는 종단 지도부에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더이상 개혁의 대상이란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한다. 불교 그 자체는 개혁될 것이 없다. 다만 사대부중의 의식과 종단의 제도가 문제일 뿐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종단의 새 지도부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의 개혁과 정착, 그리고 사부대중의 여법한 의식 고취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분야에 대한 관심과 포교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 두가지는 다음 세기의 한국불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뿌리이기 때문이다. 구태의연한 행정관습과 자리에 얽매인 인사행정도 청산해야할 과제다.

자기수행·도제 양성에 진력하길

일 연 〈동학사 주지〉

총무원장선거를 지켜보면서, 새 총무원장스님은 적지않은 반대편 지지세력이 원하고 있는 종단행정이 과연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살펴보지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옛날에 우리선조들이 국사에 임하여 신하가 임금에게 충언을 고할때면 언제든지 종묘사직과 나라를 창업했던 근본을 들먹이게 된다. 그것이 바로 국사를 함부로 다룰 수 없게 하는 마지막 충성된 간청이기 때문일것이다.

그처럼 우리 종단도 과연 대한불교조계종이 지금까지 존재할수 있었던 과거도 자비롭게 인정하고, 대 화합의 차원에서 하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종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어떤 시비를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자기수행과 후배 양성에 전력하여 우리가 사는 교단이 그대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도량이 되도록 가꾸어 가는 종책이 우선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21세기 불교세계화에 눈 돌려야

박광서 〈우리는 선우 공동대표〉

조계종의 새로운 지도자와 종권의 탄생을 축하한다. 특히 개혁종단이란 기치를 내걸고 출마했다가 낙선한 월탄스님의 선거결과에 대한 깨끗한 승복에 박수를 보낸다.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새 총무원은 21세기를 대비한 불교의 미래와 세계화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불교의 세계화를 외면할 때 한국불교의 미래는 희망이 없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아, 빈곤에 시달리는 제3세계 문제에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행을 보여야 하겠다.

내부적으로는 화합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승·재가의 교육과 사상, 윤리관 확립은 이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일이다. 그리고 재가불자들의 위상정립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새 총무원이 되어줄 것을 기대해 본다.

연구·화합하는 새모습 보여라

김징자 〈문화일보 논설위원〉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것이 한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는 일로 생각하며, 새로 출발하는 총무원에 다음과 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다. 우선, 신도들이나 국민들에게 불교의 변모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스님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는 등의 추태를 다시는 보여주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것 하나만이라도 실천된다면 불교개혁의 90%는 달성된 것으로 본다. 다음은 불교도 시대 변화에 발빠른 적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화」라는 말은 정치 경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불교의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기관 등의 내실있는 연구 업적을 필요로 한다. 스님들의 많은 공부를 기대하고 싶다.

시 론

선거로 뽑은 총무원장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그 동안의 개혁불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새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종단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민주적 선거방식에 따라 월주스님이 총무원장으로 뽑힌 것은 개혁불교의 밝은 앞날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월주스님은 그 동안 불교의 자주화와 민주화에도 남다르게 헌신적인 노력을 해 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적인 역사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온 분이다. 경제정의의 실현, 소외계층의 인권향상,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통일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사부대중이 염원하는 개혁불사를 마무리 짓고 불교 중흥을 이룩하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연 기 영
〈동국대교수·본지 논설위원〉

지난 4월 종단개혁의 봇을 올리고 출범했던 개혁회의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적인 종권 이양을 이룬 것은 한국불교가 새롭게 태어나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총무원장의 이번 선거를 놓고 교계 일각에서는 「선거혁명」이라 평가하며, 불교계가 그 동안의 폐습을 청산하고 정법수호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번 선거과정에서 다소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유감이다. 전국 사찰과 암자에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괴문서가 나도는가 하면, 후보의 숙소에 괴청년들이 난입하여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이 보도되어 다소 안타까웠다. 그러나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치뤄진 선거였고,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종책 대결이 이루어졌다는 여론도 없지는 않다.

승가다운 방법의 모색

그동안 팽배했던 문중의식이나 인맥 파벌의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개혁불사의 실천에 역점을 두어 선거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우리 불교 집안의 큰 변화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불교계의 의식수준이 그 만큼 향상된 증거라고나 할까?

그러나 이번 총무원장 선거가 인물이나 분위기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몇가지 반성해야 할 부정적인 면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우선 종교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의 일반선거와 같은 상호비방과 흑색선전 또는 폭력사태가 난무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르면서 부정·타락 선거가 자행되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선거는 돈이다」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각종 선거에서는 돈다발로 도배를 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었다.

여당과 야당을 가릴 것 없이 선거전의 「실탄」으로 선거자금이 쓰여진다. 이러한 일반사회의 선거행태의 부정적인 측면이 종교단체에도 영향을 주기 일쑤이다.

따라서 현행 종단의 선거제도가 과연 부처님의 정신과 사상에 입각한 합리적인 제도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의 지도자를 어떻게 뽑는 것이 좋을까? 그렇다고 농경사회를 문화적 배경으로 삼아 성립한 원시불교의 제도를 현대산업사회에 부활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산중공의」 제도의 장점

역시 좀 더 사부대중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다. 부처님 당시에 이미 오늘날과 같은 「민주적 공화제」를 주창했고, 합리적인 승가공동체를 운영했다. 「민주정토」라는 불국토건설을 선언했던 것이다. 대중공사의 방법인 「산중공의 제도」의 장점을 선거제도에 활용하는 대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종단을 구성하는 사부대중 속에 재가불자가 들어간다면, 그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또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 될 수 있는 선거공영제가 뿌리를 내리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한다. 공명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구성원들의 자질과 의식이 중요하다.

수행과 교육을 통해 연기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현할 수 있는 승가공동체 서원공동체가 세워져야 할 것이다.

새 총무원장에 취임한 월주스님은 「종도은건 개혁종책」을 통해 「종단의 대화합과 중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불교교육의 개혁이 중요함을 천명하였다. 승가교육의 체계화와 관련하여 승려재교육기관의 설립과 신도교육기관의 설립을 제시하고 있다. 역시 인재를 기르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한편 「생산불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였다. 재무구조 혁신을 통해 불교가 사회의 구제와 제도에 앞장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본다.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불교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점검해 나아가야 한다.

개혁불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부대중의 대화합이 요구된다. 선거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점을 불식하고 부처님의 자비와 화합정신으로 되돌아 가야한다. 서로 격려하고 의지를 모아 불교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서, 이땅에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움으로써, 나라가 민주화되고, 민족이 통일되어 민주통일정토가 이루어지도록 다 함께 정진할 때임을 강조하고 싶다.

현직 고교 선생님의 명강의와 최고의 교재

대학으로 가는 지름길!!

시사 고교 영어-수학 비디오 학습강좌

부족했던 학습보충과
다음 학기 예습을
일류강사 열 분의 명강의에
맡기십시오.
댁의 귀한 자녀를
우등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시사 고교 영어·수학 VIDEO 종합강좌는 전국고교에서 채택중인 8종 교과서를 종합한 최신 학습 교재입니다.

내신성적, 수학능력 평가시험, 대학 본고사의 확실한 개념 설명과 정확한 논리, 다양한 문제풀이로 모든 학생들의 어려움을 시사영어사 VIDEO 강좌가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영어 조기교육의 필수교재
ENGLISH 300
국민학교 비디오영어
■"English 900"의 저자 Edwin T. Cornelius, Jr. 박사 저
즐겁게 보고 들으며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미국 어린이들처럼 영어로 말하게 됩니다.

시사 중학영어·수학 VIDEO 종합강좌
5종 교과서 총망라
기존 중학교재의 문제점과 취약부분을 철저히 보강하여 완벽하게 마무리한 「시사중학영어/수학VIDEO 종합강좌」
-우등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영어강사 박서환 ·현 서울 양재고 교사 김종길 ·현 오금고 교사 서승진 ·현 한림대교수·언어학 박사
■수학강사 전도선 ·현 서울 양재고 교사 조성환 ·현 서울 양재고 교사 장 훈 ·현 한성과학고 교사

YBM 시사영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642-19 (역삼하이츠 I 빌딩 17F 765호) TEL: (02)558-5167~9, 565-5244 / FAX: (02)566-1246
교육부 본부장 이 용 갑